

전문건설협 중앙회장 첫 지역출신 탄생할까

이상현 전남도회장 등 3명 입후보 도덕성·기여도 타 후보보다 우위

오는 9월3일 열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신입 회장 선거에서 첫 지역출신 회장이 탄생할 것인지를 두고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서울 시도 및 경기도회 출신 회장들이 중앙회장을 지내왔으며 이번 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선 이상현(62·부국건설) 전남도회장이 당선된다면 협회 창립 28년 만에 첫 중앙회장으로 선출된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라

면 10대 회장 선거에는 이상현 전남도회장과 정운택 토공사협회 회장, 표재석 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대의원 165명이 투표, 최다 득표자가 회장으로 뽑히는 이번 선거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이상현 전남도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협회 대의원들은 이 회장의 개혁의지를 높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인



이상현 전남도회장

표 회장의 선거 입후보자격을 놓고 협회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운영위원회 제도와 협의체 구성 등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 회장의 발언에 호응하는 대의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후보에 비해 도덕성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협회 기여도가 높은 점도 이 회장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거쳐 선출된 표 회장은 "표 회장은 경기도, 정 회장은 서울 출신"이라며 "대

비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회장 출마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보궐선거 당시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회장 출마자격을 얻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다른 후보인 정 회장은 협회 업무에 관여한 것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회장에 비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 지방 출신 회장 탄생을 위해 지방 대의원들이 이 회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협회의 한 회원은 "표 회장은 경기도, 정 회장은 서울 출신"이라며 "대

의원의 표 50%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에서 표가 갈리고, 지방에서 이 회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 이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협회장으로 선출되면 제왕적 권리를 누리며 협회를 독단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당선이 되면 합리적인 개혁과 투명한 협회운영으로 회원사 중심의 협회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며 선출된 회장은 오는 11월1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중·하도급 건설업체 단체로, 전국에 4만여 회원사를 두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건희 회장 폐렴증상 입원... 주말께 퇴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폐렴증상을 보여 삼성서울병원에 1주일째 입원 중이다.

21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함에 따라 주치의의 권유로 1주일 전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과거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특히 폐와 관련된 증상에는 조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증상이 호전돼 이번 주말께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23일로 예정된 신경영 20주년 기념 만찬을 연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경영 만찬은 애초 16일로 잡혀 있었으나 23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회장은 9월 이후에는 해외 출장이 많이 예정돼 있어 만찬 시기는 해외 출장을 피해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퇴원하더라도 당분간 출근경영이나 대외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0.07%P 상승

7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0.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13년 7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28%로 전달(0.21%)보다 0.07%p 상승했다.

지역별로 광주지역(0.36%→0.40%)이 0.04%p, 전남지역(0.07%→0.18%)이 0.11%p 각각 상승을 기록했다.

부도금액(사채 기준)은 77억 8000만원으로 전달(44억7000만원)보다 33억1000만원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8억4000만

원), 서비스업(+16억4000만원), 제조업(+1억8000만원)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광주지역(+14억8000만원)과 전남지역(+18억3000만원) 모두 늘었다.

신규 부도업체 수는 3개로 전달(6개)보다 3개 감소했다.

업종별로 제조업(-1개), 건설업(-1개), 서비스업(-2개) 등이 감소했고, 지역별로 광주지역(-1개)과 전남지역(-2개) 모두 감소했다.

7월 중 광주·전남지역의 신설법인 수는 441개로 전달(363개)보다 78개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 찾아간 연금저축 45%... 미수령연금 1500억

금감원 밝혀

지급일이 된 연금저축 계좌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객이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용감독원은 4월 말 현재 지급일이 된 연금저축상품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 가운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44.8%인 14만8000건(적립금 5323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1994~2000년 판매된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판매된 새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옛 개인연금은 가입할 때 연금지급 조건을 정하고, 새 개

인연금은 수령 가능 시점에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된다.

옛 개인연금 미수령 계좌는 14만 2000건(4641억원)이며 적립금 중 반 이상 수 있지만 고객이 받지 않은 연금액은 1537억원이다.

새 개인연금의 미수령 계좌는 5543

건(682억원)이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전체 미수령 계좌 가운데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12만건(80.9%)으로 대다수였지만 1000만원 이상 계좌도 1만8000건(12.4%)에 달했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 가운데는 보험사 상품이 1만4000건(75.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상품이 4000건(23.8%)이었다.

이에 비해 120만원 미만 소액계좌는 은행권이 99.8%(11만90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좌당 평균 적립금은 1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옛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적립기간 만료일 현재 120만원이 안 되는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대출이나 예금 거래를 할 때 미수령 계좌에 대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각 금융사가 9월까지 만들도록 하고, 금융사가 고객의 연락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K-water 고졸사원 채용 문호 대폭 확대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고졸사원을 연 2회 채용하고, 졸업예정자(2학기 재학생)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채용 문호를 확대한다.

21일 K-water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1월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제한 공채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교 졸업예정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4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교 관련 학과(토목·전기·기계·전자통신·환경)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로 전학년 내신성적이 4.00 등급 이내여야 한다.

이들은 청년인턴으로 선발, 6개월간의 교육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상·하수도 및 수자원 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맡게 될 이들은 인턴기간 충분한 교육과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K-water는 고졸 취업에 적합한 열정과 능력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단순한 전공지식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직무능력검사와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다.

한편 K-water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84명의 고졸사원을 채용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채용된 정규직 984명의 18.7%에 달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삭하고 달콤한 홍로사과 출시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을 찾은 고객이 추석을 앞두고 출시된 홍로사과를 맛보고 있다. 산지에서 직송한 홍로사과는 맛이 아삭하고 달콤해 인기가 높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비타민하우스 건강기능식품 특별 할인전

※비타민하우스 가맹 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p>멀티비타민 웰 플러스</p> <p>67% 60,000원 20,000원</p>	<p>전립선 건강 복합쏘팔메토</p> <p>한정판 43% 70,000원 40,000원</p>	<p>관절 건강 MSM 2000</p> <p>한정판 35% 70,000원 45,000원</p>
<p>뼈 건강 프리미엄 비타민D</p> <p>한정판 25% 40,000원 30,000원</p>	<p>항산화 영양소 비타민C 1000</p> <p>한정판 46% 56,000원 30,000원</p>	

Vitamin House 구입문의 : 02-570-6075

콜핑, 서울서 대규모 패션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력을 내세워 전국구 도약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패션쇼를 계기로 수도권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전남 20여개를 비롯 전국에 35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콜핑은 부산에 본사를 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서 '콜핑이건 충분하다'는 슬로건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30여개 중국 내 매장을 향후 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콜핑은 이날 행사에서 화한 대신 받은 쌀 4000kg을 서울푸드뱅크에 기부할 예정이다.

박만영 대표이사는 "콜핑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양질의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오는 한국섬유센터 이벤트홀 쌀 4000kg 푸드뱅크 기증도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KOLPING)이 서울에서 단독으로 대규모 패션쇼를 진행한다.

(주)콜핑(대표이사 박만영)은 22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업계 및 언론 관계자 등을 초청해 '콜핑 2013 F/W 패션쇼'를 연다.

콜핑은 고가의 해외 브랜드들이